

〈추진부서〉 경기도 화성시 기후환경과(031-5189-6712)

화성시, 포스트코로나 핵심열쇠 ‘수소혁명’에 앞장서다!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 개선배경

정부 발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 1. 17.)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 연관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 정부의 기조에 맞춰, 화성시는 수소차 보급에 앞서 수소충전소 구축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 민간의 수소충전소 사업 참여를 독려했으나, 여러 이유 등으로 민간의 사업참여가 전무한 실정임
 〈수소충전소 구축상 한계점〉
 - 각종 법령상 규제로 인한 입지상 제한
 - 수소는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잘못된 선입견으로 사업 경쟁력이 있는 도심 지역 설치의 어려움
 -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망 부족
- 이에 화성시는 선도적으로 현대 하이넷과 협약을 통하여 공공청사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행법상 공공청사 내에 설치가 불가능

▶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공공청사(화성시청) 내에 수소충전소 설치 건의

※ 관련규정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 공공청사에는 구내매점·어린이집·금융업소 등 제한된 범위의 편익시설만 설치	- 공공청사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에 수소연료공급 시설 포함

• 추진과정

- 2019.03.14. : 네거티브 전환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 2019.04.26. : 규제개혁신문고 규제개선 건의
- 2019.04.~05. : 관련부서 협의 및 규제개혁안 보고
- 2019.05.21. : 규제개혁신문고 중장기 검토 답변
- 2019.06.~07.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과 1차, 2차면담(국토부 협의·조정)
- 2019.07.31. : 네거티브 건의과제 결과 회신(국토부 중장기 검토 의견, 소극적)

- 2019.09.~10.: 중앙부처(국토부) 법개정 필요성 지속 건의
- 2019.10.18.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화성시 → 경기도)
(질의내용) 규칙 개정 이전에 공공 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 착수가 가능한지
- 2019.10.21. : 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입법예고 (의견제출 기한 : ~12.02.까지, ※ 법제처 개정 3~6개월 소요)
- 2019.11.07. : 사전컨설팅감사 결과 통보(경기도→화성시)
(회신내용) 규제의 면제 불가능, 입법예고 된 「도시계획시설 규칙」일부 개정령안이 확정·시행되어 효력이 발행한 이후에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
- 2019.11.25. : 중앙부처(산업부) 법개정 조속 진행 협조 요청(산업부 화성시 방문)
- 2019.12.06. :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법개정 지원 협조 요청
- 2019.12.19. : 중앙부처(환경부) 법개정 조속 진행 협조 요청
- 2020.01.01. : 국토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
※ 공공청사 내 편의시설로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 개선효과

- 수소충전시설을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공공청사 내 설치함으로써 수소충전시설은 안전하다는 인식 제고
- 전국 공공청사 약 4,500개소에 수소충전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수소자동차 보급 및 수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그린뉴딜정책에 최적화 된 사례
-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에 따른 수소차 보급 활성화와 가솔린 대체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질소산화물 감축효과 발생

• 관련사건

화성시, 하이넷 화성동탄수소충전소 준공식

ⓒ 송은경 기자 | © 승인 2020.10.09 10:36

화성시 동탄 2신도시 수질혁신센터에 수소충전소가 문을 연다. 경기도 내에서 지자체 차여 사업으로는 최초 이다.

경기도 화성시는 8일 화성시 방교동 795동월 수질혁신센터에서 하이넷 화성동탄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시설물 화성시장과 장영학 수도관리과장, 유종수 하이넷(주) 대표이사 등 최소의 인원이 참석해 태이프 컷팅식과 사업 경과보고,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화성동탄수소충전소는 환경부의 수소충전소 민간보조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3월부터 국비 15억 원,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 11개 수소관련 기업이 참여할 특수목적법인 하이넷의 15억 원 총 30억 원이 투입됐다.

용량은 25kg/회로 1일 10시간 운영기준 최소 50~60대를 충전할 수 있다.

충전소는 자체 테스트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4일간 일반인 차량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 테스트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수질혁신센터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정촌 화성종합경기타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 총 3개의 충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다.

시설물 화성시장은 "수소충전소의 친환경 수소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화성형 그린뉴딜을 위한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발맞춰 친환경 정책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